



2026. 7. 2 (목)

금융 Analyst **조아해** like.cho@meritz.co.kr
RA **공건희** kunhee.kong@meritz.co.kr

News

5대 은행 6월 가계대출 4.1조 급증...11개월 만에 최대 폭

한국경제

<https://zrr.kr/SMjXkt>

5대 은행의 6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75조원. 이는 5월 말(771조원)보다 4.1조원 늘어난 수치로, 지난해 7월 이후 최대 증가 폭
항목별로 개인신용대출은 2.2조원 증가. 이는 전월 수준의 증가세를 이어간 것으로, 2021년 4월(6.8조원 증가) 후 역대 최대였던 5월에 근접한 규모

"연말까지 맞추면 되니까 대출 더"...당국 경고도 뚱개는 2금융권

머니투데이

<https://zrr.kr/ISfD9L>

금융위원회는 2일 가계부채 관리 차원으로 3개 카드사와 2개 캐피탈사를 소집
지난 5월에도 6개 카드사를 소집해 월말 기준 카드론 잔액관리를 주문... 하지만 이후에도 카드론 기세가 꺾이지 않자 최근 증가율이 높은 회사를 중심으로 다시 집중관리에 들어간 것

"기업금융 확대 기회"...금융위, 인터넷은행 대면 업무 확대

파이낸셜뉴스

<https://zrr.kr/DhutTH>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보호와 편의 증진 등 제한적으론 가능했던 인터넷은행의 대면 업무와 관련해 새로운 법령해석을 발표
이에 따라 카카오톡·토스·케이뱅크는 기업자금 대출 심사와 연체채권 상담을 대면으로 가능

은행권 "지수 올라도 수익 드려요"... ELD 개편해 수신방어

파이낸셜뉴스

<https://zrr.kr/BMSh8m>

시중은행들은 ELD 상품의 녹아웃(Knock-out) 기준을 높이거나 조건을 없애며 판매 확대에 나서고 있어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지수연계상품을 통해 증시로 이동하는 자금을 붙잡으려는 목적

STO 다음 격전지는 채권·MMF...증권사 선점전 본격화

이데일리

<https://zrr.kr/WX4ydP>

국내 증권사들의 토큰증권(STO) 준비 범위가 조각투자를 넘어 채권·MMF·펀드 등 정형 금융자산으로 넓혀
미술품·부동산 등 비정형 자산 중심으로 형성됐던 초기 시장이 제도권 금융상품을 블록체인 인프라에 올리는 실험으로 이동하는 모습

금감원, 신한·키움 검사 착수...JTBC 회사채 불완전판매 조사

머니투데이

<https://zrr.kr/UkphTv>

금융감독원이 중앙그룹 회사채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한투자증권과 키움증권에 대한 검사에 착수
신한투자증권은 JTBC 회사채 발행 주관사를 맡았고 키움증권은 유동화 전자단기회사채(ABSTB)를 개인투자자에게 판매

"지급여력비율 제도 손질해 달라" 디지털 보험사들 '맞춤형' 건의

이데일리

<https://zrr.kr/td2Duk>

디지털보험사들이 지급여력비율(K-ICS·킵스) 권고기준 완화를 금융당국에 공동 건의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보다 대주주 출자를 통해 확보한 기본자본 비중이 높은 사업구조를 고려해 기존 보험사와 다른 건전성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

방카슈랑스 '25% 판매 룰' 푼다...생보 50%·손보 70%까지 허용

이데일리

<https://zrr.kr/VgRdVF>

금융위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 보험상품을 모집할 때 준수해야 하는 특정 생·손보사 상품 판매 비중을 기존 25%에서 각각 50%(생보), 70%(손보)로 완화
25% 룰로 인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이 있음에도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글로벌 140社 '달리코인 동맹'...삼성전자·신한·두나무 참여

한국경제

<https://zrr.kr/OxkYeU>

비자, 마스터카드 등 글로벌 결제기업과 금융회사가 결성한 '달리코인 동맹'에 삼성전자, 신한금융그룹 등 국내 기업 13곳이 합류
테더와 서울 같은 가상자산기업이 주도해온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전통 금융회사가 반격에 나선 것

한은 총재 "예금토큰, 스테이블코인보다 안전"...미래화폐 청사진

연합뉴스

<https://zrr.kr/nj8y05>

신현승 한국은행 총재가 중앙은행의 신뢰를 기반에 둔 미래 화폐제도를 제안
민간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에는 부정적 입장을 거듭 피력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